

늘어나는 노인 무단횡단 사망사고 해법 없나

“횡단보도까지 걷기 힘들다”…육교·방지펜스도 무용지물

1시간 지켜본 양동시장 인근 도로 10여명 차량 피해 횡단

광주·전남 최근 3년 200여명 사망…노인 교통교육 등 시급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편도 3차선 도로(경열로)에서는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노인 10여 명이 무단으로 길을 건넜다. 같은 시간 차량 통행량은 1000여대가 넘었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지만 내리막길이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탓에 차량들은 제한속도를 넘기 일쑤였다.

이곳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양동시장 양유교에서 경열로 육교까지 250m 구간에 높이 1m 플라스틱 재질 무단횡단 방지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도 3개나 있었다. 하지만 노인들 상당수가 횡단보도 녹색등을 기다리지 않고 길을 건너는 가 하면 일부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우

회해 길을 건넜고, 심지어 펜스 사이를 손으로 벌려 도로를 횡단하는 위태로운 모습도 보였다.

이와 함께 무단횡단 방지펜스가 설치된 산수오거리-지산사거리 구간 왕복 9차선 도로(필문대로) 210m 구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이 도로에서도 노인들의 무단횡단은 끊이지 않았다. A(여·80) 할머니는 횡단보도 100m를 남겨놓고 차량 사이를 지나 길을 건너고 있었다. 이를 못 본 한 승합차량은 급정거를 하며 충돌을 간신히 피했다. A할머니는 큰 사고가 날 뻔 했음에도 인도가 아닌 반대편 차선을 향하며 무단횡단을 이어갔다.

또 폐지 좁은 노인들은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있어 자칫 질주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B

(83)할머니는 “인도는 좁고 울퉁불퉁해 위험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5~2017)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노인(65세 이상)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경찰과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통교육 강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들의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신호를 중심에 둔 주행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2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015년 24명, 2016년 23명, 2017년 33명 등 노인 80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전남에서는 2015년 76명, 2016년 71명, 2017년 88명 등 235명이 사망했다.

이중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경우는 광주 66명, 전남 140명 등 20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5.3%에 달했다.

노인 무단횡단 사고가 끊이지 않자 광주시는 최근 말바우시장 인근 도로 200m 구간과 양동시장 인근 220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추가 설치하는 등 광주 40여 곳에 안전시설을 조성했다. 말바우시장 인근 도로에서는 지난 한해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고 양동시장 인근에서도 지난 7월 80대 노인이 트럭에 치여 숨졌다. 여수와 목포에서도 각각 4명, 3명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홍중성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교관은 “노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무단횡단이 원인이다”며 “안전한 횡단 방법과 발길 옷차림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특별교통 안전교육 담당 교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찰과 지자체는 경로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사고 우려지역에는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페트병으로 볼링 즐겨요 1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열린 겨울방학 프로그램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해 볼링핀을 만든 학생들이 볼링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화재 10건 중 1건은 차량 화재…소화기 비치해야

광주 화재 10건 중 1건은 차량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고, 모든 차량으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

주지역 화재 발생건수 860건 중 차량 화재는 111건(12.9%)이었다. 지난 2017년에는 화재 중 923건 중 차량 화재가 100건(10.8%)으로 나타나 차량화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 거친 것으로,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다. 용기

상단에 ‘자동차검용’이란 표시가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0.7kg)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시기는 미지수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최근 5년 타미플루 부작용

1086건…대부분 위장장애

자살관련 6건 중 2명 사망

최근 5년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부작용 사례가 1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관련 부작용으로 총 6건이 보고돼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타미플루 처방 건수 총 437만 5945건 중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10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년 평균 204건이 발생했다.

타미플루의 복용 후 부작용은 대부분 위장장애로 알려졌다지만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관련 부작용 사례 또한 6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6건 중 4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이중 사망까지 이른 환자는 2명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자살 충동, 환각·기억 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승희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라며 “그동안 보건당국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39
달돋이 10:49
달질 22:19

낮기온 포근

구름 많다가 흐려져 밤에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2/10	보성	흐림	-3/9	인천	구름	충청	구름	강릉	구름
목포	흐리고한때비	0/7	순천	흐림	-1/10	대전	구름	전주	구름	도도	구름
여수	흐림	1/8	영광	흐림	-4/6	대구	구름	부산	구름		
나주	흐림	-4/9	진도	흐리고한때비	0/6	광주	구름	제주	구름		
완도	흐리고한때비	1/9	전주	구름	-2/8						
구례	흐림	-3/9	군산	구름	-2/7						
강진	흐리고한때비	-1/9	남원	구름	-4/8						
해남	흐리고한때비	-2/8	흑산도	흐리고한때비	4/7						
장성	흐림	-4/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동~동	0.5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매우 높음
감기	나쁨
미세먼지	

◇주간 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	☁	☁	☁	☁	☁	☁	☁
0/10	-2/8	-2/8	-2/4	-4/4	-3/6	-2/7	

광주 초·중·고 4~6학년때 육설 배우고 10명중 7명 부모의 말투에 영향 받아

광주 초·중·고 10명 중 7명은 4~6

학년 때 육설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친구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육설을 주로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10명 중 7명은 육설 사용과 관련해 ‘부모의 말투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해, 부모의 언어습관이 자녀의 언어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회)가 동신대 산학협력팀에 의뢰·실시한 ‘광주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방안’에서 광주 초·중·고 202명 중 153명(75.7%)은 초·중·고 4~6학년 때 육설을 처음 사용한다고 답했다.

초·중·고 1~3학년, 어린이집·유치원 시기에 육설을 배웠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44명(21.8%), 5명(2.5%)이었다. ‘육설을 들은 경로는 무엇이었나’는 질문에는 친구 143명(39.4%), 인터넷 97명(26.8%), 영화 36명(9.9%), 형제 자매(7.5%), TV 12명(3.3%), 웹툰 19명(5.2%), 부모 13명(3.5%) 순

으로 답했다.

육설을 사용하는 대상은 ‘친구’라고 응답한 학생이 169명(7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29명(12.8%), 후배 15명(6.6%)이었고 ‘선생님, 부모님에게 육설을 한다’는 응답자도 4명(1.8%) 있었다.

육설에 대한 반응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 61명(30.2%), ‘나도 똑같이 육한다’ 60명(29.7%)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육설 후 기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고쳐야겠다’ (74명·36.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상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56명·27.7%), ‘아무런 느낌이 없다’ (34명·16.9%), ‘기분 나쁜 것이 풀린다’ (16명·7.9%)는 응답도 있었다.

설문에 응한 학생 95.6%(191명)는 육설을 줄여야겠다고 답했으며, 학생 73.7%(149명)는 자신의 육설 사용과 관련해 ‘부모의 말투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김현호 기자 khh@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